

⊕ 공지사항

본당 설립 40주년 표어(슬로건) 공모

- 내용: 주보 3면을 참조하여 본당설립 40주년 기념에 어울리는 표어(슬로건)를 공모합니다.
- 마감: 6월 28일(주일)까지
- 접수: 성당 사무실
- 시상: 대상 1명 / 우수상 2명

예배자 입교식

- 일시: 6월 1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중

임시 사목회의

- 일시: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미카엘방

첫영성체자 첫고해

- 일시: 6월 20일(토) 오후 4시 어린이미사 전

구리아 평의회

- 일시: 6월 20일(토)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사목 평의회 총회

- 일시: 6월 21일(주일) 오후 1시, 기념관
- 대상: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레지오 표미시을, 구리아 간부, 각 단체장

HSC 수험생을 위한 부모 100일 기도 모임

- 기간: 6월 22일(월) ~ 10월 1일(목)

은빛대학 Term 2 종강

- 일시: 6월 25일(목)

시티 공동체 세례식

- 일시: 6월 27일(토) 오후 2시

한글학교 학예회

- 일시: 6월 27일(토)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기념관

레지오 전단원 교육

- 일시: 6월 2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3시
- 장소: 성당

구역장, 반장 교육

- 일시: 7월 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주일** | ■ 14, 21/6월 09 구역 ■ 28/6월, 5/7월 08 구역 ■ 12, 19/7월 12 구역 ■ 26/7월 11 구역  
**봉사** |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봉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기타	지출	누적잔액	미사 참여수
\$ 3,503.25	\$ 15,538.80	\$ 321.75	\$ 275.2	\$ 22,973.79	\$ 119,744.13	1,796명

주소 26 Cam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시제관** 8756 3330 (임요셉 신부), 8756 3332 (노 마카렐 신부), 8756 3331 (이 스테파노 신부), 9558 3498 (홍 아교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최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연명회** 0433 067 456 (김민희 아님) **서명봉사** 0414 488 700 (이정희 바오로)

연중 제11주일

축 영명축일

- 축하사: 6월 28일(주일) 교중 미사 중
  - 최 디아나 수녀님, 윤 바오로 수녀님
-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두 분 수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신자 대상 성령 세미나

- 일시: 6월 29일(월) ~ 7월 4일(토)
- 봉사자: 이정진 아폴레오, 송차선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3분
- 신청접수: 5월 31일(주일) ~ 6월 21일(주일)
- 문의: 0420 312 765
- 참가비: \$30 (토요일 석식 포함)

성령 세미나 관련 미사시간 변경안내

- 29일(월)~4일(토) 저녁 미사 시간이 오후 7시에 변경됩니다.
- 30일(화)도 오후 7시에 미사가 불현됩니다.

초등부 겨울캠프 신청

- 일시: 7월 3일(금) ~ 5일(주일)
- 대상: 초등부 3학년 ~ 6학년, 선착순 110명
- 참가비용: \$110
- 접수: 6월 6일, 13일, 20일 토요일 4시 미사 전 후, 성당 앞
- OT: 6월 27일(토) 오후 12시 30분
- OT: 6월 27일(토) 오후 12시 30분
- 캠프문의 및 신청문의: 0451 667 452, 0433 021 533

9월 유아세례 신청 접수 (9월 5일 예정)

- 접수기간: 6월 14일(주일) ~ 6월 28일(토)까지
- 면담기간: 6월 29일(월) ~ 7월 11일(토)까지
- 부모교육기간: 7월 15일(수) 1차, 29일(수) 2차, 8월 12일(수) 3차, 26일(수) 면담
- 유아세례일: 9월 5일(토) 오후 2시 세례

단체모임

- 6월 14일(주일) 전례 해설단, 독서단 / 생투스 상가대 / 연령회 / 올드레아 / ME 조정모임
- 6월 20일(토) 현화회 / 자모회
- 6월 21일(주일) 요한회 / 인니회 / 클로리아 상가대

⊕ 누가 알았을까 아픈 이마음을



4월 16일 목요일 7시 30분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실버워터 한인 본당으로 향했다.

종처럼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모처럼 며칠 전부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버트도 집들 나갔다. 성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짜, 놀란다. 36년 동안 미사에 참여했지만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치열하고 숙연하고 수직처럼 맑은 불의기였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성당에 있던 모든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가 되어 그 아픔에 동진하고 하는남께 이들을 동원하는 모습이었다.

거의 모두가 젊은 층의 신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 성당에 온 줄 알았다. 당연히 세월호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 또래를 자녀로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왔겠지만 의외로 그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3~4학년 또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친성한 부모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대학생들을 포함해 젊은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나 연례대의 신자들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사 강론 중 교황님은 이를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다(복음의 기쁨, 274) 더욱 새롭게 마음 속에 다가온다. 그 본질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한 생령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찾고자 부른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나의 가족이나 자식이 그 정를 현상에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다. 어느 누구도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는데 그 담당하고 역정이 무너지는 현실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신자들 모두 사제들과 하나되어 같은 지향을 가지고 기도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서 떠나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아픔을 조금씩이라도 나눠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12살 때 파스카 축제에 갔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겨우 찾았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당게 찾았단다.' (루카 2:48) 자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직까지 9구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희생자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인터넷에서 어느 학생의 엄마가 대화 중 아픔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느님! 이런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이 미사에 참여하고 느낀 점은 본문의 미사가 밝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픔에 동진한 젊은 세대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 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마 12:15~16)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자책해본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연례가 젊은 시절에 불났던 '저 부는 바람'이란 노래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든다. '누가 알았을까' 아픈 이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 이 아픈 마음을 ~~~~.

4구역 4반 지총함 스테파노

⊕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임당: 461 봉한: 217, 216 성체: 496, 501 파견: 202  
제 1독서 예레 17, 22-24 제 2독서 2코린 5, 6-10 복음 마르 4, 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 공동체 소식

성체 거동 행렬

교구 성체 거동 행렬이 6월 7일(수일) 윈아드에서 출발해 St Mary 주교좌 성당까지 있었다. 이날 시드니 교구에 속해있는 각 본당과 단체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해 성체를 모시고 함께 행렬을 했다.



## 6월 13일(토) 유아 세례자 명단

배미민 유스나	최스텔라 스텔라
배미라 하나 제인 로사	오제인 세라
이서준 임마누엘	김윤이 레온시아
이서훈 스텔라	이윤호 노아
인재현 아그노	이시뷰 스텔라
한타금 여호수아	마블레스 알베르티
한서형 이시벨라	최리인 마테아
오제이 안젤라	김 오스카 코케 라파엘
한서현 알베스나	박준현 미카엘
한서현 미카엘	이예림 로사
한서현 미카엘	이예림 미한

Century 21 Total Real Estate 김세영 부동산 김세영의 영어

**복합승운두부**  
 BCS TOPF HOUSE 에버그린스 앞은편  
**T. 986.8 4300 M. 0420 319 660**  
 Shop 10/74 Rowson St. Epping 버킹엄셔셔스

**대호여행사**  
대표 김미라입니다

· 유럽/중국/일본/미국 해외 패키지, 고급 전국 일주 관광  
· 임원관광 / 펜션, 캐논 관광 / 뉴질랜드 남섬 관광  
· Q&A 여행사 모험 / 해외 골프 리조트 패키지

**상 전기공사**  
모든 전기공사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태양열 system과 계량기 설치공사와 외선공사

**이성철 프란치스코**  
m. 0417 007 088 t. 9974 2430

Lk No. 71427C  
ASP. 1778 (계량기)  
Solar. 8890 (281)

**에픽션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로 제품 및 오수 토산품

9876 8282 (빨리빨리) 9876 6071  
**0404 070 338 (24시간)**  
277 Rawson st. Epping

**장스 주얼리**  
 커블링, 결혼예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T.9238 0050 M.0419 800611**  
 E. jangstjewellery@hotmail.com / [www.jangstjewellery.com](http://www.jangstjewellery.com)

⊕ 살아 숨쉬는 공동체

연중 제 11주일 / 마르 4, 26 - 34

마  
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6)

▲ 다른 이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타이저절로영매를매게하네. (28)

▶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새 신자나 대자녀의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느낍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31)

▶ 처음에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소중하고 크게 느껴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폴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뺀어 (32)

▶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가정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신앙내력을 나눕시다.

그 외 성경 구절을

▲ 위 성경 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올까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그 길은 무엇입니까?)

## 40주년 기념사업

1. 개막미사 (2015. 7. 12)
2. 전 신자 성경 필사 운동(2015. 7. -)
3. 신자 성경 강좌 개설(2015. 7. -)
4. 초, 중기(1976년 - 2004년) 분당역사 정리(2015. 7. -)
5. 라리로 교육관 신축(2015. 7. -)
6.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2015. 8. 23 - 2015. 10. 4)
7. 150일 매일 미사 봉헌(2015. 11. 29 - 2016. 4. 30)
8. 교회 모지 성장 건립(2016)
9. 새 가족 찾기 운동(2016. 8. 14 - 2016. 10. 16)
10. 폐암미사 (2016. 11. 6)

이남웅 스테파노 시부

## 연중 제11주일

성령 기초 세미나 안내

성령의 은사(새신 운동은 하나님 성리의 손길에 의해 20세기에 일어나고 교회개혁신운동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초대 교회의 신자들과 같이 공인하고 협력에 친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모임이다.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곳에 이곳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로 자신의 성령에 동참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모임이다. 성령세미나는 이런 결단을 가진 분들이 성령인의 새 생활로 돌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으로서 성령의 가르침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새신은 신앙생활의 변화와 교회의 새신을 통해 성사와 전례의 참여자가 새롭게 활력 있는 교회 모듬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처럼 신자들의 변화로 살, 풍성한 삶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의 허영과 자랑의 여러 사람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는 하나님의 제명과 징벌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세미나 기간이 이미 마시디 성경시대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세미나 기간이 어떤 마시디 성경시대에서 성경 공부와 묵상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배제 없이 참석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1)

## 봉사자 소개

- 이창진 이불레아인부
- \* 서울대학교 성령새신 봉사회 지도인부 역임
  - \* 현 삼성산 사람의 성령봉사회 지도인부
- 송차선 새려자 요한인부
-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성공부, 신학교 양성지도인부 역임
  - \* 가회동 주임사제 역임, 현재 중년사제 연수중
- 정의연 헬레나 회장
- \* 초대 한국 성령새신 봉사자로서 현재까지 활동중
  - \* 성령인사 봉사자
- 진봉경 다두 회장
- 현 삼성산 사람의 성령봉사회 회장
- 이순복 인나 회장
- 삼성산 사람의 성령봉사회 봉사자
  - 인나의 진원자

[illegible]